

머나 먼 중동평화

글·김영희 | 중앙일보 부사장/국제문제 대기자

I. 중동평화는 왜 실현되지 않는가?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평화협상과 평화안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뺏긴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다.

1948년 당시 이스라엘은 영국의 위임통치 아래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531개의 아랍인 마을들을 파괴하고 주민의 3분의2를 추방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의 400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다.

그때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에 귀속됐다가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아래 들어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1948년에 팔레스타인 영토의 78%, 1967년에 나머지 22%를 점령한 것이다.

오늘로 이후의 합의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철수라는 것은 1967년에 점령한 22%의 팔레스타인 영토로부터의 철수를 의미한다. 그나마 팔레스타인에 관한 최종적인 협상결과에 달렸다. 1948년에 고향을 뺏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게 이런 합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승전국이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지금도 철조망 너머로
 이스라엘에 점령된
 그들의 땅과 집과
 재산을 바라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
 에게는 귀향을
 보장하지 않는 어떤
 평화안도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패전국의 영토를 영구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패전국 국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패전국 국민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1949)을 정면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

나치 독일의 잔악한 점령정책에 치를 떨었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점령국가에 독일인들을 이주시키고 점령한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뺏은 나치 독일의 방식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네바협약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은 바로 제네바협약이 방지하려던 정책 그것들이다.

제네바협약은 거기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High Contracting Parties)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고 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주요 국가” 미국이 이스라엘의 협약 위반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큰 비극이요 아이러니다.

1991년 마드리드 회의로 본격적인 평화협상이 시작되어 1993년 워싱턴의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by Rabin and Arafat, 94 오슬로 I, 95 오슬로 II, 97 헤브론 의정서, 98 와이리버 각서, 99 샤름 엘셰이크 각서 등 일련의 합의가 성립되었지만 그것들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합의들이 예외 없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향과 재산회복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ill Clinton은 2000년 7월 Camp David 산장으로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수상과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의장을 초청하여 집중적인 협상을 갖게 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그때 미국의 친 이스라엘 언론들은 바라크가 아라파트에게 동예루살렘의 일부와 요르단강 서안의 90% 정도를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90%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1948년 아랍인들이 뺏긴 팔레스타인 땅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측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한마디로 속임수라는 것이다.

Camp David 정상회담 실패 직후의 제2차 Intifada가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워싱턴 원칙 선언은 Rabin이 주도한 가장 관대한 해결방안으로 선전됐다. 그러나 그것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 242호는 이스라엘이 1967 전쟁 때 점령한 지역--가자,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골란 고원--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다. 다시 말하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귀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나마 안보리 결의 242호도 지키 생각이 없다. 라빈은 용서 받지 못할 양보를 했다는 이유로 극우파 유대인 청년의 손에 피살됐다.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지금도 철조망 너머로 이스라엘에 점령된 그들의 땅과 집과 재산을 바라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귀향을 보장하지 않는 어떤 평화안도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인종청소, 지금은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화(Semitization)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안에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향을 허용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

2. 미국의 조건 없는 이스라엘지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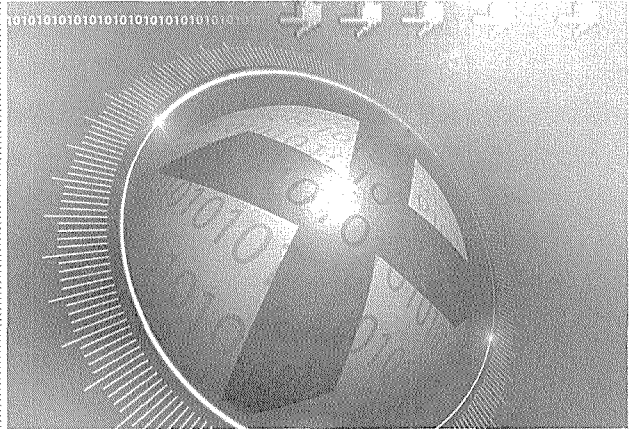
미국의 유대계 인구는 600만으로 이스라엘 자체의 인구 500만 보다 많다. 유대인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미국 의회와 정부에 대해 최강의 로비 그룹을 운영한다.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유대계 로비의 선봉인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살생부에 올라 다음 선거에서 정계를 낙선운동의 대상이 된다.

Hillery Clinton :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주장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초고학력 집단으로 Henry Kissinger, Madeline Albright 같은 국무장관, 로버트 루빈 같은 재무장관, Alan Greenspan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장을 비롯하여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수준의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1967년 이래 이스라엘에 920억달러의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한 것도 놀라울 것이 없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세계를 통틀어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3. 주요 언론매체들이 철저히 친이스라엘 논조를 펴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실상을 모르고 지낸다.

미국인들은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들에게 돌맹이를 던지고 자살 폭탄을 실은 트럭을 몰고 상점가나 식당으로 돌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악마로 만들려는 그들의 부모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친이스라엘 보도를 그대로 믿는다. 부모가 고의로 사랑하는 자식을 처참한 죽음으로



내몬다는 허구가 버젓이 통한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스라엘 군대와 아랍인들의 “대결”/Confrontation으로 묘사한다. 최첨단 병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와 돌맹이와 폭탄을 가진 민간인의 싸움을...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신문 그룹에 드는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편향된 논조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식인들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주로 민주당을 탈당한 신보수주의/New/Conservative 지식인들이다. Commentary의 편집인 Norman Podhoretz, Public Interest 편집인 Irving Kristol과 그의 아들 William Kristol이 그들을 대표한다.

AIPAC와 제휴하여 친이스라엘 로비를 벌이는 워싱턴의 중동정책연구소/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는 중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리를 많이 배출한다. 클린턴 시절 중동평화 협상을 담당했던 Dennis Ross와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지낸 Martin Indyk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게 고무적인 일도 있다. 이른바 대안

(Alternative) 언론의 등장이다. 이스라엘 편향의 주류 언론들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사태에 균형잡힌 보도를 하고,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인터넷 신문들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Leadership 약화와 부재다.

Yasser Arafat는 오슬로와 그 이후의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가서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고 싶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기대를 배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도자로서의 정당을 잃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폄하한다. 그런데도 그를 대체할만한 후계자가 없는 것이 아랍측의 고민이다.

II. 방법은 없는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유엔 결의와 제네바협약을 지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여론이 일어나야 하고, 미국의 여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언론들의 이스라엘 편향 논조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건국의 정열을 모르고 전쟁 피로를 느끼는 세대가 자란다. 특히 테러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아랍인들과의 공존을 통한 평화에 대한 갈증이 증대된다.

1987~93년의 1차 Intifada=resistance 때는 최초의 17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 1명이

죽으면 팔레스타인 사람 25명이 죽었는데 2000년 9월에 시작된 지금의 2차 Intifada에서는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 1명이 죽으면 팔레스타인 사람은 3명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NYT 2002. 3. 13일 보도)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충격적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Ben Gurion-Begin-Netanyahu-Ariel Sharon의 강경노선도 국내에서 견제를 받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날이 언제 어떤 계기로 올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은 걱정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분위기에 휩쓸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존권 투쟁을 알카에다의 무차별 테러와 같은 것으로 몰고 가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샤론은 조지 부시와 함께 9. 11 테러의 최대의 수혜자이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와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최대의 피해자다.

2010년경이면 원래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 인구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비율이 같아질 전망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악몽 같은 것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Edward Said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진실과 정치적 정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고,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빼앗았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와 같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아랍-이스라엘의 항구적인 화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아랍인의 것은 아랍인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이다. ☹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건국의
정열을 모르고 전쟁
피로를 느끼는 세대가
자란다. 특히 테러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아랍인들과의 공존을
통한 평화에 대한
갈증이 증대된다.